

완도군 “수산업 미래 인재 양성 과정에 참여하세요”

수산벤처대학 19기 50명 선발
수산업 경쟁력 제고 1390명 수료
벤처 인력 육성 맞춤형 교육 운영
만 65세 미만 수산업 종사자 대상

완도군이 미래 수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에 나섰다.

13일 완도군에 따르면 12월 19일까지 2025학년도 한국수산벤처대학 수산 벤처 과정 제19기 신입생 50명을 모집한다.

한국수산벤처대학은 2007년 완도군,

전남도, 조선대학교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내 최초 해양수산 분야 전문 인력 양성 기관으로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총 1390명이 수료했으며 수료생 중 해조류 추출물을 활용한 화장품을 개발한 ㈜이노플렉스 박수미 대표, 완도수산질병관리원 최윤재 원장 등이 활동하며 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교육은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조선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에서 10개월간 수산 정책 관련 실무 이론, 해양수

산 컨설팅(수산 경영 및 마케팅, 창업, 시제품 제조),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위한 현장 학습 등 벤처 인력 육성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수산 벤처 과정 수료 후 ‘최고 수산 경영자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최고 수산 경영자 과정’은 수산업 리더들이 참여해 전략적 경영 능력과 리더십, 글로벌 수산업 동향 등을 심화 학습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

한국수산벤처대학 지원 자격은 거주지와 학력 제한이 없으며 만 65세 미만 수산

업 종사자 및 예비 창업자로 수산 벤처에 관심이 있는 수산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원서는 조선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완도군 신지면 명사십리61번길 220)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전자우편(jh386@chosun.ac.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입생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조선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062-608-5922) 또는 완도군청 해양정책과(061-550-5101)로 문의하면 된다.

완도=정태영 기자

가을철 산불 방지 총력 대응
완도군, 내달 29일까지

완도군은 12월 29일까지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제로화를 목표로 산불 방지에 총력 대응한다고 13일 밝혔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산불 진화용 헬기를 운영하고 산불 예방 캠페인, 산불 방지 신고 포상금 지원 등을 추진한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는 논·밭두렁 및 쓰레기 불법 소각, 입산자 실화, 담뱃불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산림과 연결된 지역에서의 쓰레기 소각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 약 70%를 차지함에 따라 군은 산불 조심 기간 동안 소각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각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입산자에 의한 산불을 원천 봉쇄하고자 관내 전 산림에 대해 인화 물질 휴대 금지 등 산불 예방 금지 행위를 공고하고 대형 산불이 우려되는 완도 상왕산 등 10개소, 2870ha의 산림은 각각 입산 통제와 등산로를 폐쇄하여 집중 관리한다.

산불 예방 전문 진화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진화 장비를 점검했다.

산불에 대한 군민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주요 등산로 입구에 현수막을 부착하고 산불 취약지(읍면) 대상 산불 방지 교육 등 홍보 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다.

완도=정태영 기자

강진군, 우수 공연 선보인다

내년도 5월부터 총 4작품
국비 1억7000여만원 확보

강진군은 지난 12일 우수성을 인정받은 공연을 전국에서 선보이는 ‘2025년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에 선정돼 내년 5월부터 강진아트홀에서 다양한 공연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후원·주최하는 이번 사업은 전국에 있는 공연장이 공연예술단체들과 사전 매칭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강진군 강진아트홀은 이례적으로 매칭단체 전국 공모를 실시, 절차상 투명성과 공정성을 공고히 했다.

이 과정을 통해 전국 139개 공연장이 평균 1억3000여만원을 지원받아 오는 2025년 300여 작품을 선보이는데 이 중 강진군은 약 1억7000여만원의 국비를 확보, 총 네 작품을 5월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이태경 강진군 음악도시 조성위원 차장은 “선정되지 않은 작품들이 있어 안타깝지만 지역균등배분이라는 점에서 강진군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며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작품들이 강진군민과 관광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준비에 들어갔으므로 내년도에도 많은 이들이 강진에서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함께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한국자유총연맹 목포시지회 회원들이 연동의 주거환경이 취약한 세대를 찾아 집수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해남군, 백일해 예방접종 당부

해남군이 급성 호흡기 질환인 백일해 대유행에 따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3일 해남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백일해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한 데 이어 해남에서도 지난 2019년 이후 5년만에 환자가 발생해 현재까지 총 44명의 백일해 환자가 발생했다.

백일해는 보르데텔라균 감염으로 발생하는 제2급 법정감염병이다. 호흡기 분비물이나 비말을 통한 전파로 집단 생활 공간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고 유증상 감염자의 침, 콧물 등이 묻은 물건을 통해서도 간접전파가 가능하다.

영유아처럼 면역력이 약한 집단에서는 1명이 12~17명을 감염시킬 만큼 전파력이 매우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질병관리청은 백일해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상황에서 감염 시 중증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생후 첫 접종(2개월) 이전 영아가 백일해에 대한 면역을 갖고 태어날 수 있도록 임신 3기(27~36주) 임신부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는 빠짐없이 2, 4, 6개월에 적기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 외 고위험군(면역저하자, 중등증 이상 만성폐쇄성 폐질환자), 영유아의 부모 등 돌보미, 의료종사자 및 산후조리원 근무자 등 성인들도 유행 상황에 고려했을 때 의료기관에서 백신 접종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해남=전연수 기자

진도군, 대한민국 우수 진도개 선발대회 성료

진도군은 최근 진도개테마파크 일원에서 개최한 제28회 대한민국 우수 진도개 선발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3일 밝혔다.

본 대회는 천연기념물인 진도개를 보호·육성하고 우수성을 널리 알려 국경으로서 품격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 있는 진도개 반려인이 함께 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진도개 홍보 및 산업화를 위해 첫선을 보인 돌아온 백구 노래 ‘돌백야’ (가수 장하운)와 인형 ‘돌백’ 이도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진도군이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204두의 우수한 진도개가 출전해

외형, 품성, 핸들링 등 열면 경합을 펼쳤다.

2년 이상 성견에게 수여하는 진도군수상(대상)에는 관내 김응길 출진견 ‘초희’(암), 강성홍 출진견 ‘수범’(수), 관외 서울 성동구 양완석 출진견 ‘다운’(암), 충북 청주 권대식 출진견 ‘강호’(수)가 대상의 영예를 차지하고 각각 3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1년 이상 2년 미만의 미성견에게 수여하는 진도군의회 의장상(금상)에는 관내 김응길 출진견 ‘이야’(암), 강의택 출진견 ‘백두’(수), 관외 경기 양평 김도운 출진견 ‘금야’(암), 화순 최창주 출진견 ‘달수’(수)가 선정돼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진도=백재현 기자

한국자유총연맹 목포시지회, 연동 집수리 봉사활동

한국자유총연맹 목포시지회(회장 김세웅)가 지난 8일 연동의 주거환경이 취약한 세대를 위한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13일 목포시에 따르면 대상 가구는 가족들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독거어르신으로 노후화된 주택에 거주해 평소 집수리가 필요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제때 수리하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왔다.

이런 사정을 전해 들은 한국자유총연맹 목포시지회 회원 10여명은 이른 아침부터 고품격이 심하게 낀 벽지와 장판들

뜯어내고 새로 교체함으로써 어르신에게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개선했다.

김세웅 회장은 “이번 봉사활동으로 어르신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의미 있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서미경 연동장은 “집수리 봉사에 힘써 주신 한국자유총연맹 목포시지회에 감사드립니다”며 “동에서도 민간 복지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협력해 주민들의 복지 제고가 향상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신안군, 섬 아자니아 꽃축제 11월 말까지 자유 관람

신안군은 고이도에서 지난 1일부터 10일간 열린 ‘2024 섬 아자니아 꽃축제’가 관람객들의 호평 속에 종료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가을꽃 여행의 완성’이라는 주제로, 5000만 송이 갯국 정원, 황화코스모스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바람개비 만들기, 민속놀이 체험 등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어른도 아이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열어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섬 아자니아 꽃축제는 마무리 됐지만 축제 기간을 놓친 방문객들을 위해 11월 말까지 자유롭게 아자니아 정원을 관람할 수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시기보다 늦은 개화로 꽃이 활짝 만개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지만, 작은 섬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 만든 축제가 잘 마무리되어 감격스럽다. 내년에도 고이도를 방문하시어 노란 아자니아 꽃물결로 가을여행을 시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2024 대한민국 분재 대전 17일까지 신안 1004섬 분재정원

‘2024 대한민국 분재 대전’이 지난 11일 1004섬 분재정원에서 개막을 알리며 성대한 시작을 맞이했다. 개막식에는 미국 분재 애호가들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분재의 미와 문화적 가치를 나누는 장을 펼쳤다.

13일 신안군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미주분재분재연맹 임원단도 참석해 10일, 분재정원에서 간담회를 가지며 분재정원의 예술성과 아름다움을 극찬했다.

미주분재연맹 회장 잭 서스틱(Jack Sustic)은 “일본의 분재를 넘어, 1004섬 분재정원의 분재가 더욱 아름답다”고 감탄하며 이 정원이 세계 분재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잠재력을 지닌 곳임을 강조했다.

개막식 시상식에서는 강성학 씨가 때죽나무로 국회의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강성학 씨를 포함한 총 30명이 행정안전부장관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등 다양한 상을 수상했다.

수상자들은 각자의 분재 작품을 통해 뛰어난 예술성과 기술을 인정받았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분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1004섬 분재정원을 최고의 시설로 만들기 위해 지난 15년간 아낌없이 투자해 왔다”며 “앞으로 매년 봄에는 꽃분재 전시회, 가을에는 분재대전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분재정원을 찾는 관람객을 만족시키고, 정부포상도 확대해 대회의 품격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 대한민국 분재 대전’은 오는 17일까지 진행된다. 신안=홍일갑 기자